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과 의 일

제 46호

2005. 4. 1.



대구교구총무실
과 의 일

www.dcl.or.kr

본당설립 20년사를 준비하며

| 김계원(세례자요한) |



「그 날 우리의 입에서는 함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시편 126, 2)

4월입니다. 봄꽃보다 진한 부활의 향기에 취한 듯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사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계원(세례자요한)입니다. 지난 시간, 얼떨결에 본당 사목회장이란 막중한 봉사자로 임명받았을 때는 '감히 내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충격에 휩싸일 만큼 걱정스러웠는데, 벌써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세월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 이사하고, 낡은 성전을 허물고, 새성전에 입주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감격을 맛보고... 이 부족한 사람이 소임을 다하도록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말씀이 도와주신 신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총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으면 정말 홀가분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왜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하던지! 아마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제 마음을 저보다 먼저 읽으셨나 봅니다.

2006년이면 우리 본당이 설립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20년사를 발간할 준비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해주실 하느님을 믿고, 신자여러분의 도움이 어려울 때마다 제 곁에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준비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등촌1동 성당의 초창기 발자취를 더듬어 각 단계가 설립된 시기, 이듬을 짓게 된 동기, 활동사항, 반장, 구역장들, 역대 신부님과 수녀님 등 수집해야할 자료가 참으로 방대하고,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8명의 자문위원들이 함께 활동해주시지만 무엇보다 신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년 5월, 본당의 날 이전에 20년사 책자가 발간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역사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시오.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 주셨다. (요한21-1, 9, 12, 13)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말,
당신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혹독한 배반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당신을 외면한 고통이 커
밤새워 빈 그물을 던지고 던지며
울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새롭게 오신 당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리고
햇살이 따사롭게 퍼지는 시각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기다린 당신.

제 가슴이 왜 이렇게 아릴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
예, 주님!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에 관해서

| 박준양(세례자요한)신부 |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기도 방법은 주로 동방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애용되어온 기도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 기도방식은 동방교회의 전통 안에서, 기도생활과 영성생활을 하는 굳건한 바탕이 되고 있다.

기도시간이 아닌 때에도 그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을 얻게 된다. 겉보기에는 단지 기계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그 사람의 혈관 속에,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를 시작한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참되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상상하자. 그리고 매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에 부드럽고 평온하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할 때는 머리 속으로 하고, 혼자서 할 때는 작은 소리로 부드럽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좋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피곤해지거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마치 새가 날개질을 얼마동안 한 다음 다시 날고, 다시 날개질을 하고 또다시 날 듯이...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해도 좋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자신을 포기해야하는
씩음이 있다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롱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 있다

그러한 목숨을
모든 이의 속량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죽음이 있다

그리고 부활...
그 삶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사랑이 있다

사랑에 의한 아픔과 씩음과 죽음, 부활...
바로 당신
그리스도인이 있다



부 활 과

그 리 스 도 인

성 서 퀴 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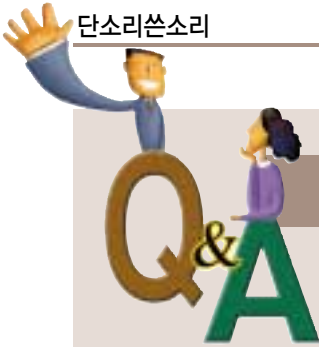
* 알맞은 성서말씀을 적어 넣으세요.

1)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신앙고백을 한 사도는?

2)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히브리말로 “라뽀니”하고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지난호 성서 퀴즈 정답 :

- ① 세례자 요한 ②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복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복사(영어: Altar boy, 불어: servent du missionnaire)란 미사, 성체강복, 혼인성사, 성체성사 등을 거행할 때 집전하는 사제를 도와 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미사라고도 불렀다.

-최인순(마리아)수녀-

원래 이 일은 하급 제 3급에 속하는 시종직(侍從職, acolythus)을 받은 자가 담당하였으나 이 성품이 폐지된 이후는 평신도인 복사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9세기부터 시종직의 일을 복사가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마인츠(Mainz) 공의회는 “모든 성직자는 미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서간경과 독서를 하거나, 미사 응답송을 부를 성직자나 소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복사는 성소(聖召)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기보다는 업무 때문에 생겨난 직책을 담당하는 자라고 보는 편이 좋다. 복사의 선출은 본당 단위로 이뤄지며, 총명하고 신앙심 깊은 10-11세의 소년이 그 대상이 된다. 복사는 중백의(中白衣, Surplice)를 입는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사의 역할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사를 보조하는 역할 이외에도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 길 안내자, 번역가, 하인의 역할까지 모두 복사가 담당하였고, 아예 선교사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성인 황석두(黃錫斗, 루가) 같은 이가 초대교회 복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가톨릭대사전에서)



칭찬 이야기



박건희(필립보)를 칭찬합니다.



듬직하고 씩씩한 모습만큼, 주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박건희(필립보)를 칭찬합니다. 필립보는 어린이 복사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성당 일을 우선으로 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척 기특합니다. 방학 때는 부모님이 깨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매일 새벽미사를 봉헌하곤 했습니다. 동춘1동 성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저는 필립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필립보는 순수한 신앙인의 마음이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칭찬과 더불어 필립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바르게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추천인 : 김용숙(세실리아)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 칭찬하고 싶은 신자 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주일학교 교사회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고민도 들어주는 작은 쉼터 역할

안녕하세요! 3월 첫 주일, 모든 분들의 격려가 담긴 임명장을 받고, 새롭게 출발한 주일학교 교사 회입니다. 성당 구석구석이 아이들의 개학과 함께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지 않은가요? 친구처럼, 때론 선배로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행복을 찾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초등부, 중등부, 해오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오름반은 장애우들을 위하여 처음 만든 반으로, 아직 교재나 활동교구 등이 충분하지 않으나 의욕적으로 꾸려갈 작정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역할은 주님과 우리 아이들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님의 참모습을 찾아 닮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고민도 들어주는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주일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교감 한수지(라파엘라)

〈2005년 주일학교 선생님 명단〉

초등부(14명)

한수지(라파엘라), 이공주(헬레나), 김소연(율리안나), 박민우(베로니카), 김학성(토마스아퀴나스), 이시연(사비나), 한수환(스테파노), 신은경(로사), 김아람(에밀리아나), 박세화(마르피노), 조성준(바로로), 서윤주(실비아), 정예송(글라라), 김동하(프란치스코)



중고등부(11명)

오건석(라파엘), 김승준(스테파노), 고효주(효주아네스), 오태상(도미니코), 최희영(엘리사벳), 김성수(베드로), 구민규(미카엘), 김샘솔(세라피나), 연보람(보나), 김은하(보나), 신용준(바로로)

해오름반(8명)

한미숙(사비나), 김민(율리안나), 김보람(율리안나), 이승희(엘라), 김재운(스테파노), 이승은(로사), 유정순(카타리나), 박경애(마리아)

남성 19구역

| 구역장 이천수 (바오로) |



3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창가에 보라빛 바이올렛이 고운 이득근(요한) 형제님 댁에서 남성 19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다.

‘차게오가 주님 뵙기를 열망하며 나무에 오르는 마음으로 저희도 주님을 기다리며 여기 모였습니다’ 라는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며 11분의 형제님들은 모임을 시작했다.

묵상

너는 이것을 믿느냐 - 이 질문에 접하면 나는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삼덕을 지켜 마르타처럼 자신 있게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비통한 마음이 복 받쳐 올랐다 - 이종사촌 동생을 잃어서 마음이 아픈데, 사자(死者)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산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다 - 일 하다가 발을 다쳤는데, 주일 미사에 불참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지내는 나에게 스스로 느끼도록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남성들은 직장문제로 반 모임을 주말에 가지면 편리하겠지만, 화요일 모임 일지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고수해 오셨다고 한다.

한 형제님은 반 모임 도중 휴대폰으로 가까운 친지의 부음소식을 들었지만 함구한 채 혼자서 슬픔을 견디고 반 모임을 무사히 끝낸 후에 달려가기도 했다고. 이 구역 형제님들은 시순시기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좋아하시던 술도 삼가시는 중이라고.

이 분들은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이심전심이 통해서 격없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다고. 뒷풀이 자리에서는 요한 형제님께서 소매를 걷어 부치고 투박한 손으로 손수 준비하신 정성스런 음식이 여러 형제님들의 갈채를 받았다. 다른 곳에서 반 모임을 끝낸 자매님들이 합석하여 가정간의 친목을 다지는 아가자기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취재팀은 훈훈한 밤길을 돌아 왔다.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체험

| 손미경 (소화데레사) 2 구역 |



홀어머니의 외아들. 지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와 혼배성사를 받으려고, 상계동에서 부평까지 예비자 교리를 받으러 오는 남편의 성의에 감동하여 결혼을 하였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 온 시어머니님과 남편, 그리고 나는 이질적인 문화와 극과 극의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동화되기까지 우린 너무도 많은 강을 건너야 했다. 갈등을 견디기 힘들었던 남편은 폭음으로 자신을 학대했고, 극심한 불화의 악순환이 나의 신혼생활이었다.

나는 결혼생활에 큰 실망을 하고 이기적인 야심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내 힘으로 공부해서 성공하면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았다.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힘들게 공부를 마쳤으나, 아들은 적응을 못했고, 내 몸은 과로로 만신창이가 됐다.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느님을 원망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께로 이끄신 방법이었다.

아들의 봉사 정성이 우리가정에 평화를 가져와

그 후 아들이 복사를 하면서 하느님은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비추어 주시고, 오만한 나를 기도의 길로 이끄시고, 회개 시키셨다. 남편은 구역일을 보고 아들덕에 열심히 신앙심을 다졌으며, 우리는 ME 교육을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알게되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 남편은 완전히 단주(端酒)를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며, 아들은 성소의 꿈을 키우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16년만에 분가하라고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체험하며,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사용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곤 한다.

주님! 제가 제 할 바를 다하고 조용히 잊혀짐을 기뻐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 대축일



영 세 식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원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
 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
 작하게 하소서.

[정광웅(요셉)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주 님 의 빛



천상의 은혜로 사랑할 소명을 주신 이여 내 생의 시작과 내 생의 끝이 천주의 뜻 안에 있듯이 바람불면 떠나가야 할 먼지일 뿐이나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이 사제의 길, 눈물 흘리며 씨 뿌린 자 기뻐 거두리라.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봉헌식]





빈첸시오회 회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기혜 / 작성일 2005-03-12 / e-mail : soosunh@catholic.or.kr

꽃샘추위 치고 너무 추운 날씨인데도, 오늘, 빈첸시오회 회장님과 회원 분들께서 직접 쌀50kg을 갖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풍명월, 청산유수 쌀 이름도 좋습니다.

주차하기 힘든 시설이라, 앞으로, 주차하기 좀 나은 곳으로 이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촌1동성당 주소로, 3개월마다 나오는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물품과 후원금 내역을 전부 공개하며, 지출집행내역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후원자들이 요구하면 한시라도 보여드립니다. 평신도가 운영하는 곳이라 어려운 점이 많지만, 등촌1동 빈첸시오회에서도 도와주시니, 안심하고 이들을 돌보며,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우리 빈첸시오회 여러분들께 넘쳐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혜 쯤마 올림, 수선화의 집, 2644-0713

미운놈

작성자 신혜자 / 작성일 2005-03-17 / e-mail : sksk24245@catholic.or.kr

미운사람 죽이는 방법..

미운사람을 죽이는 아주 틀림없는 방법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죽이고도 절대로 쇠괴량을 차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이고 하도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음성이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위기의식까지 들게 되어 이 며느리는 몰래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비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인 며느리가 그 비방이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무당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절미"라고 답했습니다. 무당은 앞으로 백 일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절미를 드리면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찹쌀을 씻어서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 년이 곧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 매일 새롭고 물랑물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야단도 덜 치게 되었습니다. 두 달(60일)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도 거두고 반대로 칭이 마르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90일)이 다 되어 가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 치기는커녕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 주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돈을 모두 싸들고 무당에게 달려가 "제가 잘못 생각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릴 방도만 알려 주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며 무당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무당은 빙긋이 웃으며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했습니다.



승산고속관광

관광버스 대여, 해외 및 국내 여행
알선, 여권발급과 항공티켓 대행



망부(亡夫)의 아픔은 크지만 기도하면서 위안을 받는다는 자매님

위암으로 투병하시던 형제님이 병중에도 영세를 받고 떠나셨기에 기도해 드릴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기도 한다며 엘리사벳자매님은 어느새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렇게도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던 요셉이었는데...’라며 자매님은 아직은 지우지 못한 형제님 생각에 또 다시 목이 메었다.

생애를 통해서 가장 뜻 깊은 사순시기

남편을 보내고 첫 번째 맞는 사순시기라서 영세 후 가장 뜻 깊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형제님의 장례미사를 집전해 주신 신부님과 인연이 귀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강론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해서 날마다 미사에 참석해 신부님 강론을 들으며 고통을 극복하고 있다고, 이 어려운 순간에 매달릴 곳은 오직 신앙뿐이라고, 천주교를 선택한 것에 감사한다고 자매님은 말했다.

취재팀이 업소 이야기를 꺼내자 아직은 홀로 서기에 익숙하지 못한 듯 사업이야기를 망설이는 자매님을 보면서 취재팀은 적잖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자매님은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디 건강을 잘 지키시라는 말로 사업이야기를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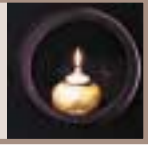
승산고속관광에서는 성지 순례시 또는 피정 때, 자녀분들 결혼식, 친목단체 야유회나 여행시에, 30년 경력의 기사님이 가족처럼 친절하게 운행하여 차량을 대여 해드리기도 하고,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저렴한 비용으로 안내해드리며, 여권발급과 항공티켓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는 업소이다.



배 동 선 (엘리사벳)

3661-7991 / 011-334-7991 / 016-298-7991

호롱 불



〈한식 합동위령미사〉 4월 5일(화) 06시, 19시

한식을 맞아 조상 어른들과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사에예물을 미리 봉헌하여 주십시오.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모집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영적 물질적으로 봉사하실 활동회원과 명예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최호림 임마누엘 011-317-7911)

〈성체조배교육〉 4월중 매주 금요일 20시



전 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지도 신부님들을 초청하여, 성체조배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4회에 걸친 강의와 봉헌식을 통해 교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원으로도 가입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체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성체 신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주 제	강 사
4월 1일	신앙생활입문	김형수 신부님
4월 8일	성사와 성체성사	김형수 신부님
4월 15일	성체조배의 필요성과 방법	정원순 신부님
4월 22일	성체조배와 삶	김덕근 신부님
4월 29일	봉헌식	

〈부활반 영세식〉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 44명의 예비신자들이 6개월간의 교리 공부를 마치고 세례성사를 통해 원죄와 본죄를 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례의식 후에는 6쌍 부부의 거룩한 혼배 성사가 있었고, 교리공부 기간 중에 하루도 빠짐 없이 출석한 일곱 분에게 드리는 개근상 시상식도 있었다. 이날 유윤상(도미니꼬)학생은 부모님과 동시에 영세를 받아 함께 꽃다발을 들고 나란히 기념 촬영을 하며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영명축일 행사〉



3월 13일(일) 11시 미사 후,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 행사와 국수 잔치가 성당에서 있었다. 화동들이 화환을 증정한 뒤에 전 신자들의 마음을 모

은 영적예물을 전달했는데, 미사영성체(4541

회)를 비롯하여 묵주기도(55288단), 주모경(15486), 십자가의 길(694), 성체조배(1313) 등 풍성한 기도선물을 신부님께 드렸다. 할아버지께서 신부님이 태어난 지 사흘만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며, 살아온 내내 요셉성인처럼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듯하다고 말씀하셨다. 신자들의 기도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감사한다는 신부님을 뵈며 '눈물 흘려 씨뿌린 자 기뻐 거두리라' 로 끝나는 성가대의 축가가 마음 안에 잔잔한 물결로 퍼져나갔다. 영육 간에 늘 건강하고, 충만한 생활 되시길 기도 드린다.

〈그룹성서〉 개강



3월 10일 목요일 10시 미사 후 〈그룹성서〉가 개강하였다. 14일(월) 개강하는 창세기반을 합하여 모두 120여명이 참여하였다. 각 반은 성서와 해설서로 공부하고 문제집으로 확인하며 나눔을 갖게 된다. 지난해 공부하였던 '성서40주간' 보다 좀더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며, 영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사도행전반은 신청자수가 적어 개설하지 못했다.

〈사순 1일 대피정〉



3월 15일 본당 성전에서 사순 1일 대피정이 있었다. 사순시기에 갖게 된 피정은 280여명의 신자가 함께 하였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 되었다.

1부에서는 장희성(대진학교장)신부님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 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데5:6-8)”란 주제로 “항상 웃으며 기쁘게, 작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는 최고의 간청기도이며 축복기도와 평화의 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는 언제나 바치는 신자가 되라”고 강의해 주셨으며, 2부에서는 이창진(서울교구 성령봉사회 지도신부)신부님의 집전으로 미사가 있었다. 미사 중 육체적 고통과 내적상처의 치유기도가 있었으며 믿음으로만이 치유됨을 강조 하셨다.

〈평생대학 개강〉



3월 10일(목) 10시 미사 후,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던 평생대학이 새봄과 함께 개강을 하였다. “만나서 반갑지만 우선 반별로 앉아달라”는 학장님(노정순세실리아)의 말을 살짝 무시(?)하고, 111명의 학생과 봉사자(담임:9명, 특활:4명, 주방:4명)들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서로에게 전달하느라 어쩔 줄 몰랐다.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노래에 맞춰, 지난 학기에 배운 울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 개학식에선 6,7년 동안 애쓰다 물러나는 주방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학생회장(신혜자카타리나)을 뽑는 순서도 있었다. 제즈댄스반이 새로 합류한 이번 학기도, 평생대학 학생들에게 눈부신 봄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레지오마리에 아치에스 봉헌식〉



3월 20일(일) 오후1시에 성전에서 아치에스 행사가 있었다. 3개 꾸리아(자비하신 모후, 창조주의 어머니, 천상은총의 어머니), 35개 빠르게 시디움에 속한 330여명의 레지오단원들이, 성모님의 푸른 깃발을 장엄하게 앞세우고 함께 모였다. 아치에스는 성모님께 대한 충성과 참된 신심을 보여드리며, 서원을 새롭게 하는 봉헌식으로 1년에 한 번 전 세계에서 열리는 레지오마리에 행사이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교회신앙의 전형인 성모님 앞에 자신을 봉헌하고, 1년의 도움을 청하

는 시간이 되라는 신부님 말씀을 기억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변함 없이 활동해주시길 바란다.

〈사목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

사목협의회 정기총회가 3월 17일에 있었다. 예수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각 분과의 보고를 시작으로, 부득이한 경우 대세를 주었을 때는 가장 먼저 성당에 연락을 하여,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하였다.

장애우들의 주일학교 반인 “해오름반”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마트 영수증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구역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설분과에서는 외부 안내판 3개소를 교체하였고, 주차장바닥과 차량검지기를 하자 보수 중에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분과에서는 주일학교의 후원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5월 15일 〈본당의 날〉에 가양 빗물 펌프장에서 있을 행사에 대해서도 의논이 있었다.

청년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축하 행사 벽 꾸미기



3월 12일(토)에 청년들이 모여,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 축하 행사가 있을 광현방을 장식하였다. 장식물을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각 단체마다 만들어온 장식물들을 다 붙이고 나니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례 초급 교육



3월 12일 (토)~13일(일) 2일간, 혜화동 가톨릭 청소년 회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초급교육〉이 있었다.

전례단 단장을 비롯하여 총3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받았다.

전례란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전례봉사자의 외적자세뿐만 아니라 엄숙하고 단정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뜻 깊은 시

간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하여, 전례단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전례봉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현재)

3월 행사결과 >>>

월	일	요일	제 목	내 용	장 소	인원
2월	18	금	사순특강 1회	시련을 이겨낼 희망의 메시지 (차동엽 신부님)	성전	270
	19~20	토~일	Co. 교육	Co. 신입단원 교육	부천은혜의 집	21
	20	일	예비자 입교식	승모승천반	성전	83
			웃놀이잔치	구역, 개인별 대항 웃놀이	본당마당	550
	25	금	사순특강 2회	사랑과 죄(성기영 신부님)	성전	303
	26	토	영세식	유아세례	성전	5
28~3/1	월~화	사목 협의회	사목협의회 단원 MT	용인영보수녀원	28	
3월	4	금	꾸리아전단원교육	성실한 레지오 단원이 되라 (김명옥 레지오학교 강사)	성전	200
	6	일	주일학교 개강	주일학교 교사 임명장 수여	성전	34
			남성구역	봉사자 피정	동성고	16
	10	목	평생대학	평생대학 개강	광현방	111
			그룹성서	〈그룹성서〉 개강(목요반)	교리실	120
	12	토	영세식	부활반 영세식	성전	44
	13	일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33회 영명축일 축하식	광현방	
15	화	사순1일대피정	1부: 장희성신부님(대건학교장)	성전	280	
			2부: 이창진신부님 (서울대교구성령기도회 주임신부)			

4월 행사계획 >>>

일자	요일	내 용
1일	금	성체조배교육(29일까지 매주금요일 20시)
3일	일	본당 가정 성화의 날
5일	화	한식 합동위령미사 - 06시, 19시
7일	목	지구,반장 월례회
		반장학교 (2회) 7일 / (3회) 14일 1단계 (4회) 21일 / (5회) 28일 대교구
8일	금	병자 영성체

일자	요일	내 용
9일	토	Se 평의원 피정 (9~10일)
12일	화	소공동체 반모임
17일	일	성소주일 행사
21일	목	구역반장 연수
23일	토	유아세례
26일	화	은혜의 밤 소 공동체 반모임



환영합니다!



(3월 18일 현재)

이름	지역/구역/반	이름	지역/구역/반
이태옥	바오로 05-15-04	현은정	프란체스카 08-27-03
류진성	안토니오 06-20-03	강혜영	데레사 03-10-02
조재현	바오로 07-23-07	이효일	스테파노 07-21-01
조인규	베네딕도 02-07-01	최천용	요왕 08-27-01
김인호	요한 01-03-05	이명자	아가다 03-08-04
장정애	프란치스카 05-17-05	이재신	프란치스코 02-04-03
구자범	프란치스코 05-16-05	박명희	지나 03-09-03
김영옥	세실리아 08-25-04	장우진	바르톨로메오 07-22-02
홍석진	안드레아 08-27-02	윤준규	시몬 07-22-04
권혁수	라파엘 08-27-03		

선종자명단

김정우 (베드로) 2005년 2월 21일	김종훈 요셉 (대세자) 2005년 3월 10일
김장엽 (실비아) 2005년 3월 11일	김장기 요셉 (대세자) 2005년 3월 15일

혼배성사를 축하합니다

신랑 : 장청배 신부 : 강민경(크리스티나)
4월 23일(토요일) 2시 본당

<장터> 장터는 성당 홈페이지 [장터코너]에 항상 올릴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모집] 라이브카페 공소로와
출서빙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우대. ☎3664-2046 / 010-4253-2046 이진호(미카엘)

광
훈
제 46호

2005년 4월 1일

발행 : 정광웅(요셉)신부 / 편집:김기인(마르띠노)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36-48 ☎ 3662-8625-6
홍보분과 : 박재현(프란치스코) · 김애선(리디아)
편집실 : 안건모(안셀모) · 권혁순(글라라) · 이혜정(비비아나)
강혜경(세실리아) · 박상철(아드리아노) · 임유경(첼리나)

이, 한 장의 사진



◀ 주차장은 이미 만원
미사시간에 자가용
사용을 삼가합니다.

꽃마당 화원

전화로 주문받아서 배달해 드립니다
(꽃바구니, 꽃다발, 화분, 난, 화환...등)

충무로4가 120-3 진양꽃상가 3층 207호
2272-3296 / 011-791-1200 김현순(엘리사벳)

민정꽃집

아무리 꽃값이 올라도 2,000원에 푸
짐한 레지오용 꽃다발을 준비하는 집.

성전 뒤편 3662-8512 김길자(카타리나)

영플라워

전국 꽃배달 서비스
각종 관엽.동서양 란.꽃바구니.화환일체

등촌1동 644-12 코오롱(아) 3차상가
3661-1770 / 010-7314-7838 최영숙(베로니카)

칼라꽃플라워

시원한 물을 준비 해 놓으며 레지오용
꽃을 사러오는 단원을 기다리는 집

새은약국 옆
3661-5070 김가영(효임골룸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모집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사랑과 나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영적 물질적으로 봉사하실
활동회원과 명예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활동회원 :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모금 및 기타 행사에 직접 참여

명예회원 : 매월 일정액을 신임하여 물질적 금전적으로 도움

▶성전입구 성수통 옆에 마련된 애금함(모금함)에 직접 봉헌하셔도 됩니다◀

[아 바오로회 활동내용]

♥빈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독거노인 및 복지단체 지원

♥교도소 수감자 및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

빈첸시오 회장 : 최호림(임마누엘) 011-317-7911

